

경 제 학

[강평 및 해설 : 박지훈 교수]

< 총 평 >

1. 영역별 문항 수

미시경제이론 : 10문항(계산문제 6문)
거시경제이론 : 8문항(계산문제 3문)
국제경제이론 : 2문항(국제무역이론 1문항(계산문제 1문).
국제수지이론 1문항)

2. 총평

그동안 서울시 문제는 국가직이나 지방직 문제에 비해 난이도와 출제범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 경제학원론 문제는 역대급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수험생 대부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답안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3. 주목해야 할 문제(A책형 기준. 7문항)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으나 주목해야 할 문제는 [1], [10], [11], [14], [19] 및 [6], [7] 문항이다. [1] 재무관리, [10] 동태적 비일관성, [11] 최저임금제와 보조금, [14] 테일러 준칙, [19] 오염배출권 가격 결정 문제는 처음 출제되는 주제의 문제이고, [6] 독점시장의 외부비경제, [7] 평균생산성 문제는 처음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이다. 그러나, 처음 출제된 주제의 문제는 기존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이어서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4. 수험대책

첫째, 경제학은 이론이다. 따라서 기본이론을 성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둘째, 경제학(특히, 미시경제학)은 수리적으로 분석되므로 계산문제 출제 비중(40%~50%)이 높다. 따라서 계산문제를 적극적으로 연습한다.
셋째, 공무원 전체 기출문제(9급 및 7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시험의 출제범위와 난이도를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정리한다.
이번 서울시 문제를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경제학의 전반적 내용을 정말로 성실하고 꼼꼼하게 준비한 후 공무원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부족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보이지 않는 나의 경쟁자”는 부족하거나 실수하지 않는다.

01. 자산가격이 그 자산의 가치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를 반영한다는 이론은?

- ① 효율적 시장 가설
- ② 공개정보 가설
- ③ 자산시장 가설
- ④ 위험프리미엄 가설

정답①

해설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

- ▶ 증권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며, 모든 참가자들은 주어진 정보를 왜곡없이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투자
- ▶ 내부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현재 증권가격에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음
- ▶ 따라서 개별투자자의 증권가격 예측과 이를 통한 투자수익은 기대할 수 없음

02. 갑국과 을국 두 나라는 각각 A재와 B재를 생산하고 있다. 갑국은 1시간에 A재 16개 또는 B재 64개를 생산할 수 있다. 을국은 1시간에 A재 24개 또는 B재 48개를 생산할 수 있다. 두 나라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갑국은 A재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 ② 을국은 B재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 ③ 갑국은 A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④ 양국 간 교역에서 교환비율이 A재 1개당 B재 3개일 경우, 갑국은 B재 수출국이 된다.

정답 ④

해설

(문제의 경우, 노동 1시간당 생산량을 자료로 제시하였으므로 생산비용(생산물 단위당 노동투입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함. 따라서 제시된 자료의 역수를 취하여 분석해야 함)

	A	B	교역 전 교역조건 $\left(\frac{P_A}{P_B}\right)$
갑국	$P_A = \frac{1}{16}$ 시간	$P_B = \frac{1}{64}$ 시간	$\left(\frac{P_A}{P_B}\right)^{갑국} = \frac{\frac{1}{16}}{\frac{1}{64}} = \frac{64}{16} = 4$
을국	$P_A = \frac{1}{24}$ 시간	$P_B = \frac{1}{48}$ 시간	$\left(\frac{P_A}{P_B}\right)^{을국} = \frac{\frac{1}{24}}{\frac{1}{48}} = \frac{48}{24} = 2$

●절대우위 : A재 : 을국, B재 : 갑국 (더 적은 시간으로 생산가능)

●비교우위 : $\left(\frac{P_A}{P_B} = 4\right)^{갑국} > \left(2 = \frac{P_A}{P_B}\right)^{을국}$ 단, $\frac{P_A}{P_B}$: B재 수량으로 표시한 A재 생산의 기회비용

- ▶ 갑국 :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으로 B재 생산하므로 B재에 비교우위(수출)
- ▶ 을국 :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으로 A재 생산하므로 A재에 비교우위(수출)

●균형 교역조건 $\left(\frac{P_A}{P_B}\right)^*$: $\left(\frac{P_A}{P_B} = 4\right)^{갑국} > \left(\frac{P_A}{P_B}\right)^* > \left(2 = \frac{P_A}{P_B}\right)^{을국}$
(A재 1개당 B재 2~4개 사이)

03. 어느 소비자에게 X 재와 Y 재는 완전대체재이며 X 재 2개를 늘리는 대신 Y 재 1개를 줄이더라도 동일한 효용을 얻는다. X 재의 시장가격은 2만 원이고 Y 재의 시장가격은 6만 원이다. 소비자가 X 재와 Y 재에 쓰는 예산은 총 60만 원이다. 이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비하는 X 재와 Y 재의 양은?

	X 재(개)	Y 재(개)
①	0	10
②	15	5
③	24	2
④	30	0

정답 ④

해설

- 문제에서, 한계대체율(MRS_{XY}) = $-\frac{\Delta Y}{\Delta X} = \frac{1}{2}$ (요소대체비를 상수. 따라서 두 재화는 완전대체재)
- ▶ 완전대체재의 효용극대화 : 한계대체율과 상대가격을 비교하여 소비선택

$$\text{한계대체율}(MRS_{XY}) = \frac{1}{2} > \frac{2}{6} = \frac{P_X}{P_Y} \text{ (} X \text{재 상대가격)}$$

X 재 선호도 > X 재 소비 기회비용
 $\therefore X$ 재만 소비할 때 효용극대화

- ▶ 소득이 60만원이고 X 재 가격이 2만원이므로 X 30개 소비

04. 사람들의 선호체계가 변화하여 막걸리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자. 이와 같은 막걸리 가격 상승이 막걸리를 생산하는 인부의 균형고용량과 균형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막걸리를 생산하는 인부의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다.)

- ①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증가하여 고용량은 증가하고 임금은 증가한다.
- ②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증가하여 고용량은 감소하고 임금은 증가한다.
- ③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감소하여 고용량은 증가하고 임금은 감소한다.
- ④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감소하여 고용량은 감소하고 임금은 감소한다.

정답①

해설

-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시장일 때, 노동수요곡선은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곡선($VMPL$)이며,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는 $VMPL = P \cdot MP_L$
- 문제에서, 막걸리 가격(P)이 상승하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L = P \cdot MP_L$) 증가
- ▶ 한계생산물가치가 증가하면 노동수요 증가(노동수요곡선 우측이동)
- ▶ 따라서, 고용량 증가, 임금 상승

05. 어느 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100명이다. 이들 중 70명은 취업자이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20명일 때, 이 나라의 실업자의 수는?

- ① 30명
- ② 20명
- ③ 10명
- ④ 0명

정답③

해설

- 실업 관련 통계
-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 - 비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 없는 자)
-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문제에서,
-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 비경제활동인구(20) = 80
-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70) + 실업자 = 80 $\therefore$ 실업자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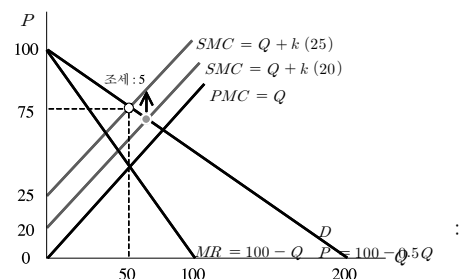
06.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독점기업을 고려하자. 외부 불경제의 크기는 이 기업의 생산량 Q 에 비례하는 kQ 이다. 이 기업의 총비용은 $50 + 0.5Q^2$ 이고 이 시장의 수요량은 가격 P 의 함수 $Q = 200 - 2P$ 로 주어진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50이다.
- ② $k = 20$ 일 때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위해서는 독점기업에 kQ 의 조세를 부과하면 된다.
- ③ $k = 25$ 일 때 시장의 거래량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고 있다.
- ④ 이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격을 75로 설정할 것이다.

정답②

해설

- 문제의 경우, 독점기업이며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존재. 따라서 독점에 따른 비효율과 외부불경제에 따른 비효율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 현재, 독점균형. 사적 한계비용($PMC = Q$)에 따라 생산
- ▶ 시장수요곡선 : $P = 100 - 0.5Q$ (시장수요함수를 가격으로 정리)
- ▶ 독점기업 한계수입 : $MR = 100 - Q$ (수요곡선 기울기 두 배)
- ▶ 독점기업 사적한계비용(PMC) : $PMC = \frac{dTC}{dQ} = Q$
- ▶ 이윤극대화 조건 : $MR = PMC \Rightarrow 100 - Q = Q$
 $\therefore Q = 50, P = 75$ ($Q = 50$ 을 수요곡선에 대입하여 가격 도출)
- 바람직한 균형 : 사회적 한계비용(SMC)과 완전경쟁균형조건($P = SMC$)에 따라 생산할 때 적정 생산
- ▶ 사회적한계비용(PMC) : $SMC = PMC + SMD = Q + k$
(단, SMD : 사회적한계피해액. $SMD = \frac{d(\text{외부불경제})}{dQ} = k$)
- ▶ 적정생산조건 : $P = SMC \Rightarrow 100 - 0.5Q = Q + k$
- 문제에서,
- ③ $k = 25$ 일 때, 바람직한 생산량 : $100 - 0.5Q = Q + k$ (25)
 $\therefore Q = 50$ (사회후생극대화 생산량)
- ② $k = 20$ 일 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다 생산.
따라서 5만큼의 조세를 부과하면 SMC 곡선이 상방 이동하여 바람직한 생산(50) 가능



07. 어느 경제에서 생산량과 기술 및 요소 투입 간에 $Y = AF(L, K)$ 의 관계가 성립하며, $F(L, K)$ 는 노동, 자본에 대하여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Y, A, L, K 는 각각 생산량, 기술수준, 노동, 자본을 나타낸다.)

- ① 생산요소인 노동이 2배 증가하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증가한다.
- ②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각각 2배 증가하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증가한다.
- ③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각각 2배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2배로 높아지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2배 증가한다.

정답③

④ 생산요소인 자본이 2배 증가하고 기술수준이 2배로 높아지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2배 증가한다.

해설

•규모수익불변 생산함수 :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로 설명.
 $Q = AL^\alpha K^\beta$ (단, $\alpha + \beta = 1$)

▶ $AP_L = \frac{\partial Q}{\partial L} = \alpha AL^{\alpha-1} K^\beta = \alpha AL^{\alpha-1} K^{1-\alpha} = \alpha A \left(\frac{K}{L}\right)^{1-\alpha} = \alpha A k^{1-\alpha}$

(단, $\alpha + \beta = 1$ 이므로 $0 < 1-\alpha < 1$, $k = \frac{K}{L}$: 1인당 자본량)

▶ $MP_L = \frac{\partial Q}{\partial L} = \alpha AL^{\alpha-1} K^\beta = \alpha AL^{\alpha-1} K^{1-\alpha} = \alpha A \left(\frac{K}{L}\right)^{1-\alpha} = \alpha A k^{1-\alpha}$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 : $AP_L = A \left(\frac{K}{L}\right)^{1-\alpha} = A k^{1-\alpha}$

- ① 노동(L)이 2배 증가하면 분모가 증가하므로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 감소
- ② 노동과 자본이 각각 2배 증가하면 1인당 자본($k = \frac{K}{L}$)이 변하지 않으므로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 불변
- ③ 노동과 자본이 각각 2배 증가하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 불변.
- 기술 수준(A)이 2배가 되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 2배 증가
- ④ 자본(K)이 2배 증가하면 1인당 자본($k = \frac{K}{L}$) 증가하고 기술수준(A)이 2배로 높아지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2배 이상 증가

08. A는 현재 시가로 1,600만 원인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도난당할 확률이 0.4라고 한다. A의 효용함수는 $U = 2\sqrt{W}$ (W는 보유자산의 화폐가치)이며, 보험에 가입할 경우 도난당한 귀금속을 현재 시가로 전액 보상해준다고 한다. 보험 가입 전 A의 기대효용과 A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기대효용

최대보험료

- ① 36 1,276만 원
- ② 48 1,024만 원
- ③ 36 1,024만 원
- ④ 48 1,276만 원

정답②

해설

•공정보험

▶ 기대자산($E(X)$) = $S \cdot (1-P) + F \cdot P = 1,600 \cdot 0.6 + 0 \cdot 0.4 = 960$ (만원)

(단, S : 귀금속

현재가치, F : 도난 발생시 가치 : 도난발생시 자산가치, P : 도난당할 확률)

기대효용

($E(U)$) = $U(S) \cdot (1-P) + U(F) \cdot P = 80 \cdot 0.6 + 0 \cdot 0.4 = 48$ (만 u)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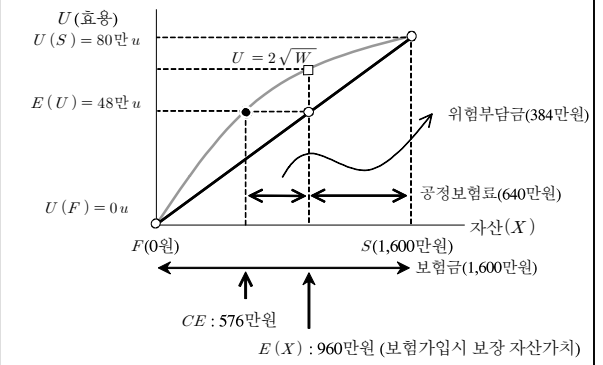
$U(S) = 2\sqrt{S} = 2\sqrt{1,600} = 80u$, $U(F) = \sqrt{F} = \sqrt{0} = 0u$)

▶ 확실성등가(CE) : $E(U) = 48 = 2\sqrt{CE}$. $\therefore CE = 576$ (만원)

▶ 공정보험료 = $S - \text{기대자산}(E(X)) = 1,600 - 960 = 640$ (만원)

▶ 위험부담금 = 기대자산($E(X)$) - 확실성등가(CE) = $960 - 576 = 384$ (만원)

▶ 최대보험료 = $S - \text{확실성등가}(CE) = \text{공정보험료} + \text{위험부담금} = 1,024$ (만원)



09. 인플레이션은 사전에 예상된 부분과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경로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
- ②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 ③ 피셔(Fisher) 가설이 성립하게 된다.
- ④ 장기계약이 만들어지기 어렵게 된다.

정답③

해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영향

- ① 투기 성행
- ② 소득재분배 효과 발생 :
- ③ 피셔(Fisher) 가설 :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인플레이션율.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피셔가설이 성립하지 않음(실질이자율 감소)
- ④ 장기계약 곤란

10. 적극적인 경기 안정화 정책의 사용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에서 정책의 동태적인 비밀관성(또는 시간 비밀관성)의 의미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책의 집행과 효과 발생 과정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정책 당국은 시장의 암묵적 신뢰를 깨고 단기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할 인센티브를 가진다.
- ③ 정권마다 다른 정책의 방향을 가지므로 거시 경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다.
- ④ 시장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정책의 방향을 시의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②

해설

•동태적 비밀관성(시간 비밀관성)

- ▶ 동태적(장기적)으로 예고된 것과 달리 단기적 상황 변화에 따라 당국이 정책을 변경하는 현상
- ▶ 과거 시점에서 최적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경제정책이 경제여건이 변화하면 당국은 정책을 수정
- ▶ 이 경우 특정 시점에서 시행된 최적정책이 동태적으로는 비밀관성을 가지게 됨

11.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다음 표와 같다고 하자. 시간당 최저임금을 8원으로 할 경우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의 규모는 ㉠이고, 이때 실업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보조금으로 소요되는 필요 예산이 ㉡이다. ㉠과 ㉡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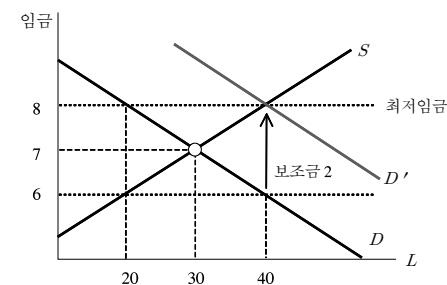
시간당 임금(원)	6	7	8
수요량(개)	40	30	20
공급량(개)	20	30	40

- ① 10, 20
- ② 10, 40
- ③ 20, 40
- ④ 20, 80

정답④

해설

- 최저임금제 : 노동시장 초과공급(비자발적 실업) 발생
- ▶ 임금 8일 때 : 초과공급(비자발적 실업) = 노동공급량(40) - 노동수요량(20) = 20
- ▶ 기업에 정책보조금(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면 노동수요곡선 상방이동
- ▶ 기업에 시간당 2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40 고용가능. 이때 총보조금(필요 예산)은 80



12.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개방경제에서, <보기> 중 이 경제의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는(환율 상승)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ㄱ. 원유 수입액의 감소
- ㄴ. 반도체 수출액의 증가
- ㄷ.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위축
- ㄹ. 자국 은행의 해외대출 증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④

해설

- ㄱ. 원유 수입액의 감소 : 수입감소 $\Rightarrow$ 외환수요 감소(외환수요곡선 좌측이동) $\Rightarrow$ 환율하락
- ㄴ. 반도체 수출액 증가 : 수출증가 $\Rightarrow$ 외환공급 증가(외환공급곡선 우측이동) $\Rightarrow$ 환율하락
- ㄷ. 국내주식 투자 위축 : 증권투자 감소 $\Rightarrow$ 자본유입 감소(외환공급곡선 좌측이동) $\Rightarrow$ 환율상승
- ㄹ. 은행 해외대출 증가 : 기타투자 증가 $\Rightarrow$ 자본유출 증가(외환수요곡선 좌측이동) $\Rightarrow$ 환율상승

13. 어떤 독점기업이 시장을 A와 B로 나누어 이윤극대화를 위한 가격차별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A 시장의 수요 함수는 $Q_A = -2P_A + 60$ 이고 B 시장의 수요함수는 $Q_B = -4P_B + 80$ 이라고 한다(Q_A, Q_B 는 각 시장에서 상품의 총수요량, P_A, P_B 는 상품의 가격임). 이 기업의 한계비용이 생산량과 관계없이 2원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A 시장과 B 시장에 적용될 상품가격은?

A 시장	B 시장
① 14	10
② 16	11
③ 14	11
④ 16	10

정답②

해설

- 독점기업의 3차 가격차별
- ▶ 두 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현저하게 다를 때 시장별로 이윤극대화 조건($MR = MC$)에 따라 가격차별
- ▶ 가격차별 이윤극대화조건 : $MR_A = MC = MR_B$
- 문제에서,
- ▶ A 시장 : 수요곡선(수요함수 가격으로 정리)
 $P_A = 30 - 0.5Q_A$, $MR_A = 30 - Q_A$ (수요곡선 기울기 두 배)
- ▶ B 시장 : 수요곡선(수요함수 가격으로 정리)
 $P_B = 20 - 0.25Q_B$, $MR_B = 20 - 0.5Q_B$ (수요곡선 기울기 두 배)
- ▶ 가격차별 이윤극대화조건 : $MR_A = MC = MR_B$
 $MR_A = MC \Rightarrow 30 - Q_A = 2 \Rightarrow Q_A = 28$,
 $P_A = 16$ (생산량을 수요곡선에 대입하여 가격 도출)
 $MR_B = MC \Rightarrow 20 - 0.5Q_B = 2 \Rightarrow Q_B = 36$, $P_B = 11$
(생산량을 수요곡선에 대입하여 가격 도출)

14. 중앙은행이 테일러 준칙(Taylor rule)하에서 통화 정책을 실행한다고 하자.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이 중앙 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같고 현재의 생산량이 잠재생산량 수준과 같을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높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중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통화정책을 펼친다.
- ④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갭과 생산량 갭이 모두 양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통화정책을 펼친다.

정답③
해설

•테일러 준칙

▶ 정책금리의 바람직한 결정 방식을 보여주는 관계식
▶ 목표 명목 정책금리 = 균형 명목 정책금리(균형 실질 정책금리 + 실제 인플레이션율)
+ β · 인플레이션 갭 + α · 산출갭

(단, α, β : 상수, 산출갭 = $\frac{Y_N - Y}{Y_N}$, Y_N : 잠재산출량,

인플레이션갭 = 실제 인플레이션율 - 목표인플레이션율)

•문제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같고 현재 생산량이 잠재생산량과 같을 경우

▶ 목표 명목 정책금리(기준 금리) = 균형 명목 정책금리(실제 금리) + $\beta \cdot 0 + \alpha \cdot 0$

▶ 따라서, 기준금리가 현재대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 시행

15. 최근 A는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현금 5천만 원을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예치하였다고 한다. 현재 이 경제의 법정지급준비율은 20%라고 할 때, 예금 창조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A의 예금으로 인해 이 경제의 통화량은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ㄴ. 시중은행의 초과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A의 예금으로 인해 경제의 통화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ㄷ. 전체 통화량 가운데 민간이 현금으로 보유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A의 예금으로 인해 경제의 통화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ㄹ.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법정지급준비율이 25%로 인상되면, 인상 전보다 A의 예금으로 인해 경제의 통화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③
해설

•신용창조(예금통화 창출)와 통화공급 함수문제에서, 현금 5천만원을 요구불예금 예치. 이 경우,

▶ 신용창조(예금통화 창출) : $D^G = \frac{1}{z} \cdot S$

(단, D^G : 총예금, z : 법정지급준비율, $\frac{1}{z}$: 신용승수, S : 본원예금)

▶ 통화공급함수 : $M^S = \frac{1}{c+z(1-c)} \cdot H$ (단, c : 현금통화, M : 통화량, R : 지급준비금, D : 예금통화, c : 현금통화비율(C/M), z : 지급준비율(R/D), $\frac{1}{c+z(1-c)}$: 통화승수, H : 본원통화)

$M^S = \frac{k+1}{k+z} \cdot H$

(단, k : 현금예금비율(C/D), $\frac{k+1}{k+z}$: 통화승수)

•문제에서, 현금을 요구불예금할 때

ㄱ. 신용창조 : $D^G = \frac{1}{z} \cdot S \Rightarrow D^G = \frac{1}{0.2} \cdot 5\text{천만} = 2\text{억} 5\text{천만}$.

통화량(예금통화) 최대 2억 5천만 증가 가능

ㄴ. 초과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지급준비율이 낮아져서 통화승수 증가. 따라서 통화량 대폭 증가

ㄷ. 현금통화비율(민간이 현금으로 보유하는 비율)이 낮으면 통화승수 증가. 따라서 통화량 대폭 증가

ㄹ. 법정지급준비율이 인상되면 지급준비율이 상승하므로 통화승수 감소. 따라서 통화량 소폭 증가

16. 어떤 경제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이 400조 원이며, 중앙 은행이 결정하는 이 경제의 총화폐공급은 현재 30조 원 이다. 다음 표는 이 경제의 이자율에 따른 총화폐수요, 총투자, 실질 국민소득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자율(%)	총화폐수요 (조 원)	총투자 (조 원)	실질국민소득 (조 원)
1	70	120	440
2	60	110	420
3	50	100	400
4	40	80	360
5	30	50	320

① 실질국민소득이 완전고용수준과 같아지려면 중앙은행은 총화폐공급을 20조 원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② 현재 이 경제의 실질국민소득은 완전고용수준보다 40조 원만큼 작다.

③ 중앙은행이 총화폐공급을 지금보다 30조 원만큼 증가시키면 균형이자율은 1%가 된다.

④ 현재 이 경제의 균형이자율은 4%이다.

정답①

해설

① 실질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400)과 같을 경우 이자율은 3%. 이자율이 3%일 때 총화폐수요가 50이므로 총화폐공급이 50이 되어야 함. 따라서 총화폐공급을 20조 증가시켜야 함

② 현재 총화폐공급 30이므로 총화폐수요가 30일 때 균형. 따라서 현재 실질국민소득은 320이므로 완전고용 수준보다 80 부족

③ 지금보다 총화폐공급이 30 증가하면 총화폐공급은 60. 총화폐수요가 60일 때 균형이 되며, 이때 이자율은 2%

④ 현재 총화폐공급이 30이므로 총화폐수요가 30일 때 균형이 되며 이때 균형이자율은 5%

17. <보기>에서 임대료 규제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암시장의 발생 가능성 증가
- 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의 감소
- ㄷ. 주택의 질적 수준의 하락
- ㄹ. 비가격 방식의 임대방식으로 임대주택의 비효율성 발생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④

해설

●최고가격제

- ▶ 가격하락에 따라 공급량이 감소(ㄴ)하고 수요량이 증가하여 초과수요 발생
- ▶ 초과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암시장 발생 우려(ㄱ)
- ▶ 시장가격은 생산비(한계비용)를 반영함. 따라서 시장가격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면 품질 저하 우려(ㄷ)
- ▶ 비가격 방식(선착순, 추첨 등)으로 임대할 경우 대기비용 등 비효율성 발생(ㄹ)

18.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사용을 고려한다고 하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두 정책의 상대적 효과는 소비와 투자 등 민간지출의 이자율 탄력성 크기와 관련이 있다.
② 두 정책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③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한다면 두 정책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 두 정책 간의 선택에는 재정적자의 누적이나 인플레이션 중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답②

해설

- ① 소비와 투자의 이자율탄력도에 따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가 다름
▶ 소비와 투자의 이자율탄력도가 클 때 : 통화정책 효과 크고, 재정정책 효과 작음
▶ 소비와 투자의 이자율탄력도가 작을 때 : 통화정책 효과 작고, 재정정책 효과 큼
② 확대 재정정책시 이자율 상승, 확대 통화정책시 이자율 하락
③ 확대 재정정책시 이자율 상승을 막으려면 긴축 통화정책을 함께 시행
④ 확대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재정적자가 커지고, 확대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인플레이션 유발. 따라서 재정적자가 우려되면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경우는 재정정책을 시행

19. 어떤 마을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총 3개 있다. 오염물 배출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각 기업이 배출하는 오염배출량과 그 배출량을 한 단위 감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정부는 오염배출량을 150 단위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래서 각 기업에게 5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이 배출권을 기업들이 자유롭게 판매/구매할 수 있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오염배출권 한 개당 배출 가능한 오염물의 양은 1단위이다.)

기업	배출량(단위)	배출량 단위당 감축비용(만 원)
A	50	20
B	60	30
C	70	40

- ① 기업 A가 기업 B와 기업 C에게 오염배출권을 각각 10단위와 20단위 판매하고, 이때 가격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형성된다.
② 기업 A가 기업 C에게 2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하고, 이때 가격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③ 기업 A가 기업 B에게 1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하고, 기업 B는 기업 C에게 2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한다. 이때 가격은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④ 기업 B가 기업 C에게 2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하고, 이때 가격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정답 ①

해설

●문제의 자료에서, 배출권 가격에 따른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을 계산하여 배출권 균형 가격 분석

	배출권 가격	매입	판매
①	20 ~ 30 만원	B : 10, C : 20	A : 30
②, ④	30 ~ 40 만원	C : 20	A와 B
③	20 ~ 40 만원	C : 20	A : 20
④	25만원	C : 40	A : 40, B : 40

단, 배출권 가격 < 감축비용일 때 배출권 매입(수요),
배출권 가격 > 감축비용일 때 배출권 매각(공급)

20. 어떤 사람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소득의 절반을 식료품 구입에 사용한다. <보기>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식료품의 소득 탄력성의 절댓값은 1보다 작다.
- ㄴ. 식료품의 소득 탄력성의 절댓값은 1이다.
- ㄷ. 식료품의 가격 탄력성의 절댓값은 1보다 크다.
- ㄹ. 식료품의 가격 탄력성의 절댓값은 1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④

해설

●문제에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소득의 절반을 식료품 구입에 사용”할 경우

▶ 수요의 소득탄력도 = $\frac{\text{수요변화율}}{\text{소득변화율}} = 1$. 소득이 증가할 때 같은 비율로 소비가 증가

▶ 수요의 가격탄력도 = $\left| \frac{\text{수요량 변화율}}{\text{가격 변화율}} \right| = 1$. 소득의 절반이 지출액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가격탄력도는 1